

# 불어 QUE...QUE/QUI 구문의 역사적 고찰과 분석

(Embedded Relative Clauses in French: QUE...QUE/QUI)

김준한\*

## 요약

이 논문에서는 불어의 특수문형 QUE...QUE/QUI 구문의 형성과 발달, 그리고 구문 분석의 문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QUE...QUE/QUI 구문이 불어사의 전과정을 통해 꾸준히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본다. 라틴어의 부정법 구문에서 벗어나 새로운 불어 문형으로 등장한 QUE...QUE/QUI 구문은 문법적으로 정당화하기 매우 힘든 점이 있으며, 모음생략부호(')가 없는 중세 불어 필사본의 특성과 모음 앞에서의 QUI의 자유로운 축약, QUE에 의한 QUI의 대체, 철자전도 현상 등 중세불어의 언어적 특징, 그리고 이 구문에 대한 불어화자의 거북한 언어감정까지 겹쳐 여러 가지 변이형이나 유사구문들이 생겨났다. 또한 문법학자들에 의해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배격 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불어시기(français classique: 17~18세기)를 거쳐 현대불어에까지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QUE...QUE/QUI 구문만이 갖는 특유의 문체적 특징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부정법 구문이 갖지 못하는 용법의 유연성, 그리고 삽입문과는 달리 호흡의 중단이 없는 생동감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점이 바로 QUE...QUE/QUI 구문의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 1. 서론

불어의 특수 문형 QUE...QUE/QUI 구문은 그 문법성과 문체적 층위

---

\*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구문의 문법 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비문법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이 구문이 꾸준히 사용되고 올바른 불어 문장으로 간주되는 이유를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QUE...QUE/QUI 구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1) cet homme **qu'**elle affirme **qu'**elle a rencontré

(2) le mal **que** je dis **qui** me possède

위의 두 문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문장에서 QUE 접속사절의 목적어 또는 주어를 분리해 관계대명사절로 바꾼 것이다.

(3) Elle affirme qu'elle a rencontré **cet homme**.

(4) Je dis que **le mal** me possède

이 QUE...QUE/QUI 구문은 불어사에 있어서古불어(ancien français) 시기 이래로 계속 존재했던 것으로, 17~18세기의 고전불어(français classique) 시기에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고, 현대불어에서도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 2. QUE...QUE/QUI 구문의 형성

라틴어의 후손인 불어의 문법은 기본적으로 라틴어 문법과 닮아있다. 그런데 불어의 QUE...QUE/QUI 구문에 해당하는 라틴어 문형에서는 부정법 구문(proposition infinitive)을 쓰도록 되어 있다.<sup>1)</sup> 불어 QUE...

QUE/QUI 구문의 첫 번째 QUE(QUE1)절에 나오는 동사에 해당하는 라틴어 동사들은 모두 부정법 구문을 요구하는 동사들이다.

- 선언동사(verbe déclaratif): dico, “je dis”; affirmo, “je déclare”; nego, “je déclare que... ne... pas”, etc.
- 의견동사(verbe d’opinion): credo, “je crois”; existimo, “j’estime”; scio, “je sais”; polliceor, “je promets”; spero, “j’espère”, etc.
- 지각동사(verbe de perception): uideo, “je vois”; audio, “j’entends” ou “j’apprend”; animaduerio, “je remarque”; sentio, “je m’aperçois”, etc.
-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동사(verbe de sentiment): doleo, “je souffre”; gaudeo, “je me réjouis”; miror, “je m’étonne”; queror, “je me plains”, etc.
-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verbe de volonté)<sup>2)</sup>: uolo, “je veux”; cupio, “je désire”; studeo, “je m’applique à”; iubeo, “j’ordonne”, etc.
- 일부 비인칭 동사(verbe impersonnel): apparet, “il apparaît aue”; me fugit, “il m’échappe”; incredibile est, “il est incroyable”, etc.<sup>3)</sup>

부정법 형태가 ‘현재’, ‘과거’, ‘미래’로 나뉘어져 있어<sup>4)</sup> 불어에서보다 유연하게 부정법 구문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접속사절을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복잡한 시제일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라틴어에서 부정법 구문이 일반화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래서 불어의 QUE...QUE/QUI 구문은 라틴어에서 다음과 같은 부

1)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QUE1 자리에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ratio per quam dixit Aristoteles intellectum esse ingenerabilem.

2)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verbe de volonté) 다음에는 접속사 ut에 의한 보어절이 올 수도 있다.

3) 이 라틴어 동사들의 분류는 Guy Serbat(1986: p.172)를 따른 것이다.

4) 예를 들면 불어의 arriver 동사에 해당하는 라틴어 동사는 다음과 같이 현재, 과거, 미래 형태의 부정법을 갖는다. aduenire, aduenisse, aduenturum esse.

정법 구문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 (5) formalis numerus, quem dixit Pythagoras esse principium omnium rerum. “Le nombre formel que Pythagore a dit qui était le principe de toute chose.”

QUE...QUE/QUI 구문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라틴어 문장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6) Petrus quem Paulus dicit vidisse virum “Pierre que Paul dit qui a vu l’homme”  
 (7) Vir quem Paulus dicit Petrum vidisse “L’homme que Paul dit que Pierre a vu”  
 (8) Vir quem Paulus dicit se vedisse “L’homme que Paul dit qu’il a vu”  
 (9) Maria quam Paulus dicit venisse “Marie que Paul dit qui est venue”

물론 이 라틴어 문장들을 불어로 옮길 때 불어의 부정법 구문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부정법 구문으로 전환해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 (8), (9) 예문은 다음과 같이 부정법 구문을 사용해 불어로 옮길 수 있다.

- (6) Pierre que Paul dit avoir vu l’homme  
 (8) L’homme que Paul dit avoir vu  
 (9) Marie que Paul dit être venue

그러나 (7)번 예문은 어떤 방법으로도 부정법 구문으로 바뀌 쓸 수 없다.<sup>5)</sup>

(7) \*L'homme que Paul dit Pierre avoir vu

위의 라틴어 예문에 대한 불어 번역을 토대로 QUE...QUE/QUI 구문을 부정법 구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 a. QUE...QUI 구문은 항상 부정법 구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b. QUE1...QUE2 구문의 경우, QUE2절의 주어가 QUE1절의 주어와 같으면 부정법 구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c. QUE1...QUE2 구문에서 QUE2절의 주어와 QUE1절의 주어가 다를 때는 부정법 구문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다음의 불어 부정법 구문의 예들은 모두 위의 a, b 경우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 • QUE...QUI 구문과 부정법 구문 사이의 전환

- (10) Il marcha contre les ennemis, qu'il sçavoit avoir paßé la rivière. = Il marcha contre les ennemis, **qu'il savait qui** avaient passé la rivière.
- (11) Il fit du bien à tous ceux qu'il sçavoit avoir aimé son fils. = Il fit du bien à tous ceux **qu'il savait qui** avaient aimé son fils.
- (12) Cet élève que je dis être intelligent = Cet élève **que** je dis **qui** est intelligent

---

5) R. L. Wagner와 J. Pinchon(1962: p.574)도 QUE...QUE 구문을 부정법 구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Il y a même des cas où, à moins de couper la phrase, on est contraint de recourir à cette construction:

Et tout le haut de son corps était secoué d'un fou rire qu'il apparaissait bien qu'elle ne pouvait pas maîtriser. (A. Gide)"

- (13) Cette séance que je sais devoir être dépourvue d'intérêt =  
 Cette séance **que** je sais **qui** doit être dépourvue d'intérêt
- (14) Les bêtes que tu vois se montrer méchantes = Les bêtes  
**que** tu vois **qui** se montrent méchantes

• QUE1...QUE2 구문(QUE1절과 QUE2절의 주어는 동일)과 부정법  
 구문 사이의 전환

- (15) Le mal que je dis me posséder = Le mal **que** je dis **qui** me  
 possède
- (16) Cet homme qu'elle affirme avoir rencontré = Cet homme  
**qu'**elle affirme **qu'**elle a rencontré
- (17) Cet enfant sans parents qu'elle dit avoir vu = Cet enfant  
 sans parents **qu'**elle dit **qu'**elle a vu
- (18) Les chevaux que vous déclarez avoir pris = Les chevaux  
**que** vous déclarez **que** vous avez pris

이와 같이 라틴어 부정법 구문을 모두 불어의 부정법 구문으로 표현  
 할 수 없다는 점은 불어에 QUE...QUE/QUI 구문이 자리 잡게 된 한 원  
 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현대불어에까지 QUE...QUE 구문은 꾸준히 사용  
 되는 반면 QUE...QUI 구문은 배척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QUE...QUE  
 구문은 부정법 구문으로 고쳐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QUE...QUI 구  
 문의 경우 항상 부정법 구문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 그 필요성과 존재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라틴어에서 불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매우 중요한 통사적 변  
 화 중의 하나가 지각동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정법 구문을 요구하던  
 동사들이 모두 접속사 que에 의한 보어절을 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접속사를 이용한 종속절의 사용은 불어에서 독자적으로 생겨난 것은 아  
 니며 이미 라틴어에서 부정법 구문을 종속접속사절로 바꾸는 경우가 있

있고, 이러한 경향은 라틴어 후기로 갈수록 강해졌다.<sup>6)</sup> 드물기는 하지만 불어의 QUE...QUE/QUI 구문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라틴어 예문도 찾을 수 있다.

- (19) malitiam **quam** dixit **ut** faceret eis 또는 malitiam **quam** locutus fuerat **ut** faceret eis, “le mal que Dieu avait dit qu’il leur ferait” (구약, 요나 3: 10 첫 라틴어 문장은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d’Aquin)의 「신학대전」(Summa Theologiae)에서 인용된 구절임)

동사의 주어와 목적보어가 모두 대격(accusatif) 형태로 나타나는 부정법 구문<sup>7)</sup>과는 달리 접속사절을 사용하게 되면 주어와 목적보어의 혼동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격체계가 무너진 불어에서는 부정법 구문이 항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접속사절로의 전환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sup>8)</sup> 라틴어에서 보어절을 만들 때 사용되던 여섯 개의 접속사 quod, quia, ut, ne, quin, quominus가 quia 하나로 통일되어 체계가 단순화된 것도 보어절의 발달을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sup>9)</sup>

이처럼 라틴어 격체계의 붕괴와 종속접속사의 통일로 인한 접속사절의 발달로 자연스럽게 불어의 QUE...QUE/QUI 구문이 생겨나게 되었

6) credere, dicere 등의 동사 뒤에서 부정법 구문 대신 종속접속사절을 사용한 예는 키케로(Cicéron) 시대에 이미 발견할 수 있다. Cf. G. Serbat (1986: pp.173-174)

7) ‘Paulus dicit Petrum vidisse virum’의 문장에서 부정법 vidisse의 주어 Petrum과 목적어 virum은 모두 대격 형태이다. 어순이 자유로운 라틴어에서는 이 경우에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 해석할 수도 있다.

8) J. Batany(1972: p.250)도 불어의 QUE...QUE/QUI 구문의 기원에 대해 라틴어의 복잡한 접속사절들을 프랑스 작가들이 모방한 결과로 보고 있으나(“On voit ainsi combien les prosateurs de la période 1350-1650 accumulaient les *que* de toute espèce, par amour des subordinations complexes imitées du latin”) 정확히 어떤 접속사절들을 모방했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9) 후기 라틴어(bas latin)에서 “quod”의 뜻으로 쓰이던 quia의 축약형 qui/qua에서 불어 접속사 que가 나온 것으로 본다. Cf. G. Serbat (1986: p.169)

으며, 古불어가 정착되어 중세 불문학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12세기에는 이미 QUE...QUE/QUI 구문이 불어의 어법으로 자리 잡은 것을 이 시기 작품들의 분석으로 알 수 있다.<sup>10)</sup>

### 3. QUE...QUE/QUI 구문 분석

넓은 의미에서의 QUE1...QUE2/QUI 구문에는 QUE1 자리에 <전치사 + 관계대명사>의 형태가 나타나는 유형의 구문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 (1) cet homme **qu'**elle affirme **qu'**elle a rencontré
- (2) le mal **que** je dis **qui** me possède
- (20) cet homme **dont** elle affirme **qu'**elle l'a rencontré
- (21) le mal **dont** je dis **qu'il** me possède
- (22) cette solution **dont** je dis **qu'**elle est satisfaite
- (23) l'endroit **où** il sait **qu'**on le mène
- (24) l'homme **à qui** je sais **que** vous nuisiez

(20)~(24)의 예문을 보면 QUE1은 확실히 관계대명사 자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예문들의 성격은 조금씩 다르다.

(1), (2)는 각각 종속절의 목적어(또는 주어의 속사<sup>11)</sup>)와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가 분리되어 앞으로 이동해 나온 관계절이다.

10) Chrétien de Troyes나 Geoffroi de Villardouin의 작품들, *Aiol*, *Roman d'Alexandre* 등의 12세기 작품들에서 QUE...QUE/QUI 구문의 용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Cf. Ph. Ménard (1976: pp.94-95), G. Moignet (1973: p.233), J. Batany (1972: p.249)

11) Tout monstre **que** vous dites **que** je suis. 여기서 montre는 je의 속사이다.

(1) Elle affirme qu'elle a rencontré cet homme. ⇒ cet homme **qu'**elle affirme **qu'**elle a rencontré

(2) Je dis que le mal me possède. ⇒ le mal **que** je dis **qui** me possède

(22)~(24) 예문들은 종속절 안의 전치사구(형용사의 보어, 상황보어, 간접목적어)가 이동하여 만들어진 관계절이다.

(22) Je dis qu'elle est satisfaite de cette solution. ⇒ cette solution **dont** je dis **qu'**elle est satisfaite

(23) Il sait qu'on le mène à l'endroit. ⇒ l'endroit **où** il sait **qu'**on le mène

(24) Je sais que vous nuisiez à l'homme ⇒ l'homme **à qui** je sais **que** vous nuisiez

(20), (21)의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 (22)번 문장과 같은 경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 (2)의 변이형이다. (1), (2)번 문장을 (20), (21)로 바로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의 문장이 필요하다.

(20) Elle affirme qu'elle a rencontré cet homme. ⇒ Elle affirme à propos de cet homme qu'elle l'a rencontré. ⇒ cet homme **dont** elle affirme **qu'**elle l'a rencontré

(21) Je dis que le mal me possède. ⇒ Je dis à propos du mal qu'il me possède. ⇒ le mal **dont** je dis **qu'il** me possède

즉 종속절의 목적어나 주어(cet homme, le mal)를 dont의 뜻을 갖는 전치사구 à propos de, au sujet de 등을 사용하여 주절의 동사(affirmer, dire)와 먼저 결합시킨 후 관계대명사 dont을 이용한 관계절을 만드는 것이다.

(20), (21)의 예는 QUE...QUE/QUI 구문의 분석에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22)~(24)의 경우와 같이 이동의 제약이 적은 전치사구 이동의 결과로 <전치사 + 관계대명사>가 QUE1 자리에 오는 경우는 불어화자에 의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주어나 목적으로 사용된 명사구가 이동하는 QUE...QUE와 QUE...QUI 구문에 대해서는 어색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20), (21)은 불어화자의 언어감정을 거스르는 (1), (2)의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형이다.

(1), (2) 유형의 QUE...QUE/QUI 구문에 대해 불어화자가 어색함을 느끼고 문법 분석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QUE1절 동사(또는 동사구)와 선행사 사이의 통사적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sup>12)</sup> (1), (2) 번 예문이 관계절로 바뀌기 전의 문장에서는 동사 *affirmer*와 *dire*가 요구하는 대로 QUE에 의해 유도되는 종속절이 직접목적보어를 이룬다. 그런데 관계대명사절로 전환하고 나면, 실제로는 종속절(QUE2/QUI) 동사의 목적어 내지는 주어인 선행사(*cet homme, le mal*)가 마치 QUE1절 동사의 직접목적어인 것처럼 느껴진다. 물론 *affirmer*와 *dire* 동사가 *cet homme*나 *le mal*과 같은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더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QUE1절 동사(구)의 성격상 선행사와의 어떤 통사적 연결도 불가능하다.

(25) Un article de moi que **je serais heureux** que vous lisiez

(26) Un fou rire qu'**il apparaissait** bien qu'elle ne pouvait pas maîtriser

(27) Un homme que **je suis sûr** qui parlait de moi

12) 이제까지의 QUE...QUE/QUI 구문 분석에서 QUE1절 동사와 선행사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 것은 M.-L. Moreau(1971: p.80)의 경우가 유일하다. Moreau는 QUE1절에 나타나는 *croire*와 *dire* 동사의 목적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Le verbe *croire*, au sens de «penser», pas plus que le verbe *dire*, ne tolère de compléments d’objet directs humains.”

그럼에도 불구하고 QUE...QUE와 QUE...QUI 구문 모두에서 선행사가 QUE2나 QUI절의 목적어 내지는 주어인 QUE1절 동사의 목적어로 인식된다는 것을 다음 예문들의 과거분사 일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28) La parole *qu'il a dite* que nous n'oublierons pas

(29) C'est cette phrase *qu'il a dite* qui m'intéresse.

이로 인해 QUE1절 동사는 선행사로 이동해 나간 명사구와, 뒤따라 나오는 QUE2절 또는 QUI절을 동시에 목적어로 취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이렇게 선행사로 나간 명사구와 QUE1절 동사 사이의 호응 문제, 그리고 이중목적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구문이 바로 (20), (21)의 DONT...QUE 구문인 것이다.

원래는 QUE2절의 목적어이거나 QUI절의 주어인 선행사가 QUE1절의 목적어처럼 여겨지게 된 데에는 지각동사 구문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4)</sup> 다음 예문들은 각각 QUE...QUE 구문과 QUE...QUI 구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문장구조를 갖는다.

(30) L'homme que je vois qui vient ← Je vois l'homme qui vient.

(31) Le diamant que vous voyez que mon père a au doigt ←  
Vous voyez le diamant que mon père au doigt.

13) 물론 이 문장들에서 *dire* 동사의 과거분사 *dit*는 일치시키지 않는 것이 옳다.

(28) La parole *qu'il a dit* que nous n'oublierons pas

(29) C'est cette phrase *qu'il a dit* qui m'intéresse.

14) "Selon Sneyders de Vogel (*Synt. histor. du Fr.*, 2e éd., § 277), *l'homme que je vois qui vient* est la transposition en phrase relative du tour *Je le vois qui vient*; cette construction, naturelle après les verbes de perceptions, se serait étendue, par analogie, aux verbes déclaratifs : *L'homme que je crois qui vient*." (M. Grevisse, 1980: 1330)

위의 문장들에서 선행사 l'homme와 le diamant은 각각 QUE1절 동사 voir의 직접목적보어이다. 다시 말해 QUE2절과 QUI절은 QUE1절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종속절이 아니라 QUE1절 동사의 직접목적 보어를 수식하는 순수한 관계대명사절이다.

선행사와 QUE1 동사의 호응관계와 이중목적어 문제가 QUE...QUE/QUI 구문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라면 QUE...QUI 구문에는 동사의 목적보어절에 접속사 QUE가 아닌 QUI가 나타나는 문제가 더해진다.

QUE...QUI 구문의 QUI는 QUE절 동사의 목적보어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도 관계대명사 주격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층불어(français populaire)에서는 QUI를 QUE로 복구시킨 후 선행사를 주어 자리에 대명사로 다시 써서 종속절로 환원시키는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32) Ce neveu **que** tu m'as dit **qu'il** (= ce neveu) te ferait crever de chagrin = ce neveu **que** tu m'as dit **qui** te ferait crever de chagrin

(33) Cet élève **que** je dis **qu'il** (= cet élève) est intelligent = ce élève **que** je dis **qui** est intelligent

그러나 이러한 아나콜뤼트(anacoluthie)<sup>15)</sup> 구문들은 표준불어(français standard)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sup>16)</sup> 선행사로 나간 명사의 자

15) 어떤 문형을 시작했다가 도중에 그 문형을 중단하고 전혀 새로운 문형을 시작하여 처음 문형을 구성하던 성분들과 뒷문형의 성분들이 통사적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경우를 전통문법에서는 '아나콜뤼트(anacoluthie)'라고 부른다. (32), (33)의 예문에서 선행사로 나간 명사구 ce neveu와 cet élève는 QUI절의 주어 역할이 기대됐으나 qui절이 qu'il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통사적 관계가 단절되는 아나콜뤼트의 경우에 해당한다.

16) 그러나 QUE...QUI를 <QUE...QUE + 주어>의 형태로 쓰는 아나콜뤼트 구문은 그 비문법성에도 불구하고 현대불어에까지 상당히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리를 대명사로 다시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QUE...QUI 구문에서 종속접속사가 와야 할 자리에 QUI가 나타난 근본적인 이유는 불어에서 주어 자리가 비어있는 QUE 접속사절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원래는 선행사를 따라 QUE1의 위치로 이동해야 할 QUI가 주어 자리를 지키기 위해 QUE2의 자리에 남았다는 말이다. 영어의 경우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34) \*This is the guy **who** I said **that** \_\_\_\_ loved Mary.

(35) This is the guy **who** I said \_\_\_\_ loved Mary.

불어의 QUI에 해당하는 WHO는 선행사와 함께 QUE1 자리로 옮겨가고 접속사 QUE에 해당하는 THAT를 삭제해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접속사 QUE의 생략을 허용치 않는 불어에서는 다음 두 문장이 모두 비문법적이다.

(36) \*cet élève **qui** je dis **qu'**est intelligent.

(37) \*cet élève **qui** je dis est intelligent.

그러므로 QUE...QUI 구문은 명사구를 앞으로 이동시켜 관계대명사절을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주어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종속접속사 QUE 절의 구성에 대한 제약에 의해 도중에 멈춰버린 것이다. 이 QUI는 이제까지의 많은 문법학자들의 설명처럼 단순히 관계대명사(QUI)가 종속접속사(QUE)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종속접속사와 이 종속절의 주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통문법 술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품사이다.<sup>17)</sup> 종속절의 주어가 의문사로 이동되어 나간 의문문들을 보면,

17) R. Kayne(1983: pp.69-70)과 D. Pesetsky(1981/1982: p.339) 모두 주어를 포함한 보문소(complementizer)로 기능하는 이 qui를 접속사 que의 변이형으로 보고 있다.

이 QUI가 단순한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종속접속사로서 기능하며, 동시에 앞으로 나간 의문사가 종속절의 주어임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8) Que croyez-vous **qui** les intéresse?

(39) Qui croyez-vous **qui** a volé son cœur?

QUI가 정상적으로 QUE1의 위치에 가지 못하고 QUE2의 자리에 남아 접속사로서의 기능까지 갖게 된 결과, QUE1의 자리에는 격을 갖지 않고 중화(neutralisé)되어 단순한 연계사의 성격을 띠는 관계대명사의 형태인 QUE가 오게 된다.<sup>18)</sup> 이렇게 관계대명사이면서도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연계사로 기능하는 QUE의 용법은 다음과 같은 예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0) C'est moi **que je** suis Désiré Lecoq. (= C'est moi **qui** suis Désiré Lecoq.)

(41) C'est moi **que je** les vide tous les jours. (= C'est moi **qui** les vide tous les jours.)

(42) C'est nous **qu'on** fait le pain. (= C'est nous **qui** faisons le pain.)

(43) C'est les boyaux **qu' ça** y travaille. (= C'est les boyaux **qui** y travaillent.)

(44) Il y a aussi un Anglais **qu'on lui** fait un tas de supplices. (= Il y a aussi un Anglais **à qui** on fait un tas de supplices.)

(45) Ses boutons de manchettes; vous savez, ceux **qu'on** a lu **leur** description dans le journal. (= ceux **dont** on a lu la

---

18) "La langue populaire a fait *que* un conjonctif universel qui peut s'employer dans tous les cas possibles." (Kr. Sandfeld, 1977: p.175)

description)

- (46) La solution **qu'elle en** est contente (= la solution **dont** elle est contente)

#### 4. QUE...QUE/QUI 구문의 역사

제 2장에서 말했듯이 QUE...QUE/QUI 구문은 이미 고불어 시기부터 확인된 문형이다. 여기서는 고불어(ancien français) 및 중기불어(moyen français) 시기의 언어 및 표기법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 구문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쳐 왔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고불어와 중기불어를 포함하는 중세불어(français médiéval) 시기의 QUE는 관계대명사와 종속접속사로 쓰이는 것은 현대불어와 같지만, 그 용법과 의미가 훨씬 다양했다. 이 중 관계대명사 QUE는 QUI를 대신해서 주격을 표시할 수 있었다. 즉 QUE...QUI 구문으로 분석해야 할 문장이 QUE...QUE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점은 QUE...QUE/QUI 구문의 분석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소이다.

QUE가 QUI를 대치한 예는 다음과 같다.

- (47) .III. aventures **que** je vous dis **que** chaiens avenroient hui en cest jour. (*La Suite du Roman de Merlin*, 262, 5)

QUE가 주격으로 사용된 예는 현대불어의 몇몇 굳어진 표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48) ce **que** bon vous semble, “ce **qui** vous semble bon”

- (49) advienne **que** pourra, “ce **qui** pourra (advenir)”

관계대명사 QUE가 주격의 용법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외에도, 16세기까지 QUI가 모음 앞에서 축약될 수 있었던 특성도 QUE와 QUI의 혼동을 더욱 부추겼다.

(50) J'escry naïvement tout ce **qu'**au cœur me touche. (Du Bellay, *Regrets*, XXI - P. Dupré, 1972: t. 3, p.2145b에서 재인용)

QUE2의 분석에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QUI의 경우에 나타난다. 현대식 구두점과는 전혀 다른 구두점 체계를 가졌던 중세불어 필사법에는 모음 생략 부호(')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세 필사본의 qui는 그대로 qui라고 적어야 할 경우도 있지만 qu'i로 고쳐 읽어야 할 경우도 많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문장을 분석해 쉽게 qui와 qu'i를 선택할 수 있지만, QUE...QUE/QUI 구문의 경우 어떤 표기를 선택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현대 판본 편자의 선택이 순전히 자의적인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중세 필사본 상의 qui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

- a. qui
- b. qu'i (i = 인칭대명사 3인칭 주격, 즉 qu'il, qu'ils, qu'elle, qu'elles)
- c. qu'i (i = 중성대명사 y)

qui가 관계대명사 주격뿐만 아니라 qu'i(= qu'il), 즉 종속접속사나 관계대명사 목적격 que와 3인칭 주격 인칭대명사의 축약 형태에 대한 표기일 수 있는 것은 중세불어 시기의 불어 발음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어말 자음이 약화되어 있었고, 주어 인칭대명사는 약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음 앞에서 l이 탈락하게 되고 결국 qui와 qu'il은 모두 qui로 발음되었다.<sup>19)</sup> 이런 음성 현상이 표기법에 반영되어 quil(= qu'il)로 적

어야 할 곳에 qui(= qu'i)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3인칭 주격 인칭대명사의 형태를 살펴보면, 고불어 시기에는 남성 복수형도 il이었고, ils/ilz의 형태는 주로 중세불어 시기에 나타난다. 두 경우 모두 자음 앞에서는 [i]로 발음 되었다. 3인칭 여성형 el과 els을 il과 ils/ilz로 적는 일도 흔히 있었다. 중세불어 시기에는 서부 방언을 중심으로 남성형에서 il/ils 대신 el/els을 쓰는 곳이 있었으며, il이 el로 쓰이는 이 현상에서 철자 顛倒(graphie inverse)가 일어나 여성형 el/els이 il/ils로 적히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습관과, 3인칭 주격 인칭대명사 형태의 혼동, 그리고 모음 생략 부호의 부재가 합쳐져서 필사본 상의 qui는, 중성대명사 i(= y)와 que의 축약(qu'i)을 제외하더라도, qui, qu'il, qu'ils, qu'elle, qu'elles에 대한 표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관계대명사 주격 qui를 quil로 적는 일도 흔히 있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역시 철자 전도<sup>20)</sup> 현상의 경우로 중세 프랑스 필사본 언어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즉, quil(= qu'il)을 qui(= qu'i)로 적는 것을 거꾸로 해석하여 qui를 quil로 적는 것이다.<sup>21)</sup>

이와 같은 사실들로 해서 필사본 상의 중세불어 QUE...QUE/QUI 구문은 사실상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다음의 중세불어 예문들은 판본 편자의 표기 외에도 다른 해석이 가능하며, 현대불어의 관점에서

19) cf. G. Zink (1990: p.50); Ph. Ménard (1976: p.95).

20) qui/quil의 경우 외에도 동사의 부정법 어미 -er와 직설법 현재 2인칭 복수 어미 -ez의 혼동도 대표적인 철자 전도의 예이다. 즉 aller가 올 자리에 allez를 쓰고, 반대로 allez 자리에 aller가 오는 것이다. 이 밖에도 souvenir와 sourvenir의 경우 등 중세불어 필사본에는 동음어(homophonie) 현상에서 비롯된 많은 철자 전도가 확인된다.

21) 판본을 만들 때 'qui'의 뜻으로 쓰인 quil은 표기법의 혼동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quil로 남겨두기도 하고, 필사가의 오류로 간주하여 qui로 교정하기도 한다.

보면 오히려 QUE...QUI 구문으로 써야 맞다.

- (51) Tel piet baise on c'om [qu'om] vorroit **qu'il** (또는 **qui**) fust coppez.
- (52) des trespuissans dieux qu'i dient **qu'il** (또는 **qui**) ont créé les cieulx? (*Mystère de sainte Barbe*)
- (53) Par ma foy, dist Blancete, qui estoit la plus jenne, je croy que ce soit le viel bon homme qui repaire en la cuisine de ceans que l'en dit **qu'il** (또는 **qui**) est leuvaroux par nuyt (*Perceforest* IIe partie, 575, 169b)

어떻게 생각하면, 중세 표기법에 모음생략부호가 없고 qui와 quil이 동일하게 발음되는 문제로 표기가 혼동되어 구문의 분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중세의 저자(auteur), 또는 필사가(copiste, scribe)들이 이와 같은 표기법의 영향을 받아 que와 qui의 구분을 명확하게 의식하지 않은 채 문장을 썼다고 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남아있는 중세불어 문헌들은 QUE...QUE/QUI 구문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오히려 중세불어의 혼란스러운 표기가 그 이후의 QUE...QUE/QUI 구문의 사용과 해석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필사본 표기의 문제와 상관없이 QUE...QUE/QUI 구문이 중세불어 화자에게 무척 부담스러운 것이었다는 점을 다음의 15세기 불어 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22)</sup>

22) 이외에도 중세불어에서 QUE...QUE/QUI 구문에 대해 불어 화자가 얼마나 혼란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경우는 많이 있다. Chrétien de Troyes의 *Perceval*에 나오는 다음 문장의 여러 이형태(variantes)들은 이런 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 cil **que** l'en dit **qui** tant fu buens  
 b. cil **que** l'en dit **que** tant fu buens  
 c. cil **qui** l'en dit **que** tant fu buens

(54) *quar la ferme esperance eslite / que j'ay, qu'on me dit, me prouffite. (Mystère de sainte Barbe, f° 99v°, v. 6123)*

위 예문은 전형적인 QUE...QUE 구문에서 QUE1절과 QUE2절의 순서가 뒤집어진 형태이다. 정확한 QUE...QUE 구문으로 고쳐 쓰면 다음과 같다.

(55) *quar la ferme esperance eslite qu'on me dit que j'ay me prouffite.*

(55)처럼 써야 할 문장이 (54)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 것은 뜻밖이다. 운문 텍스트이지만 (55)처럼 쓴다고 해도 전혀 작시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sup>23)</sup>

(54)의 예문은 이 문장을 쓴 작가가 QUE...QUE 구문의 QUE1절을 삽입절로 재해석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QUE1절(*qu'on me dit*)이 떨어져 나가면서 QUE2는 더 이상 종속절이 아닌 완벽한 관계대명사절이 된다. 흥미로운 점은 QUE1절이 삽입절로 독립되면서도 여전히 QUE1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다.<sup>24)</sup> 이점은 (54) 예문의 작가가 *la ferme esperance eslite*라는 명사구와 동사 *dit*를 관계대명사 QUE1로 연결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예 QUE1까지 *dit*와 함께 떼어내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 QUE1은 중세불어 문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선행사 없는, 또는 선행사를 함축한 관계대명사의 용법이 되

d. cil **dont** on dit **qui** tant fu buens (J. Batany, 1972: p.250)

23) (54)나 (55) 모두 텍스트가 요구하는 8음절 시구를 지키고 있다.

24) 정상적인 경우라면 *on me dit, me dit-on* 정도의 형태가 되었어야 한다. 이때 *on me dit*를 써서 “*que j'ay, on me dit*”가 되더라도 *ay*와 *on* 사이의 모음충돌(hiatus)은 중세 작시법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음절수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comme on me le dit, on me le dit* 등 다른 형태의 삽입문도 가능하다.

며, 현대불어로 표현한다면 à ce qu'on me dit, c'est ce qu'on me dit 정도가 된다.<sup>25)</sup> 즉 (54) 번 예문은 (56)의 문장에서 la ferme esperance eslite가 앞으로 이동하여 만들어진 관계대명사절이 아니라, (57)과 같이 la ferme esperance eslite que j'ay라는 관계절에 qu'on me dit라는 삽입문이 첨가된 것으로 재해석된 것이다.

(56) On me dit que j'ay la ferme esperance eslite.

(57) la ferme esperance eslite que j'ay + qu'on me dit

## 5. QUE...QUE/QUI 구문의 문체

QUE...QUE/QUI 구문의 문체에 대한 관점도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다. 이 구문이 ‘무겁고 지나치게 기교를 부린 문체(style lourd et recherché)’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sup>26)</sup>, 무겁지만 하층 불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sup>27)</sup>, 부정법 구문에 비해 무겁

25) A. Tobler 역시 QUE...QUI 구문의 분석에서 이 QUE를 선행사 없는 중성 관계대명사로 보고 있다.

“Pour Tobler (*Mél.*, pp.156 sq.), *que* est, dans ces phrases, un pronom relatif neutre sans antécédent, semblable à celui de phrase: *On aura, QUE je pense, / Grande joie à me voir* (MOL., *Ec. des f.*, I, 2); *Il n'est pas venu, QUE je sache*. Ainsi *Une feuille qu'on dit qui paraît* signifierait à peu près *Une feuille qui - à ce qu'on dit - paraît*.” (M. Grevisse, 1980: §2615, p.1330)

26) “Tour parfaitement correct, mais un peu recherché. On pourra tourner de manière plus légère” (J. Girodet, 1981: p.648)

27) “Que la construction à double conjonctive [...] soit, malgré sa lourdeur, selon le génie du français, c'est ce que prouve l'usage qu'en a toujours fait la langue, qu'elle en fait encore aujourd'hui. La langue populaire avant tout, (dont les démarches instinctives ont une valeur de témoignage qu'on ne peut méconnaître)” (P. Dupré, 1972: t. 1, p.505b)

지도 가볍지도 않은 다른 문체일 뿐이라고 여기기도 한다.<sup>28)</sup>

QUE...QUE/QUI 구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특히 QUE...QUI 구문에 대한 것이 많다. 문법 구조의 난해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QUE...QUE/QUI 구문이 가장 많이 사용된 17~18세기에도 QUE...QUI 구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17세기의 Vaugelas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작가들이 사용했으니 [...]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표현이 섬세한 귀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거슬리고, 이 구문에 뭔가 세련되지 못한 것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후자[QUE...QUI 구문]는 절대로 쓰고 싶지 않으며, 전자[부정법 구문]도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29)</sup> 그러나 Vaugelas는 QUE...QUI 구문과 부정법 구문 모두를 배격할 뿐 어떤 다른 문형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

QUE...QUE/QUI 구문을 비난하는 입장에서는 부정법 구문이나 DO NT...QUE 구문, 삽입절, 또는 병치구문(parataxe)<sup>30)</sup>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2장), 모든 경우의 QUE...QUE 구문을 부정법 구문으로 바꿀 수는 없으므로 부정법 구문으로 QUE...QUE 구문을 완전히

28) “ L'exemple de Racine [Cet enfant sans parents qu'elle dit qu'elle a vu], dans lequel le relatif *que* est complément d'objet du groupe: *elle dit qu'elle a vu*, n'est ni plus lour ni moins lourd que sa variante *qu'elle dit avoir vu*. Il est d'un autre style.” (R.-L. Wagner et J. Pinchon, 1962: pp.573-574)

29) “[...]je ne voudrais jamais me servir de la dernière, & rarement de l'autre, non pas que ie la croye mauvaise, puis que tous nos meilleurs Auteurs s'en servent, [...] mais parce que je sçay qu'elle choque beaucoup d'oreilles délicates, & de fait, je sens bien qu'il y a quelque chose de rude en cette construction.” (Cl. F. de Vaugelas, 1934: pp.101-102)

30) 접속사를 사용하여 논리 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두 문장을 나란히 쓰는 어법. 두 문장 사이의 관계는 억양이나 구두점에 의해 나타난다. Les délicats sont malheureux: Rien ne saurait les satisfaire. (= Les délicats sont malheureux, car rien ne saurait les satisfaire.)

대체할 수는 없다. 또한 불어의 부정법 구문의 경우 라틴어의 부정법 구문과는 달리 관계절로 바뀌기 전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즉 QUE...QUE/QUI 구문이 먼저 있어야 부정법 구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58)

- a. Petrum quem Paulus dicit vidisse virum ↔ Paulus dicit Petrum vidisse virum.
- b. Pierre que Paul dit qui a vu l'homme ↔ Paul dit que Pierre a vu l'homme.
- c. Pierre que Paul dit avoir vu l'homme ↔ \*Paul dit Pierre avoir vu l'homme.

(59)

- a. Virum quem Paulus dicit se vidisse ↔ Paulus dicit se vidisse virum.
- b. l'homme que Paul dit qu'il a vu ↔ Paul dit qu'il a vu l'homme.
- c. l'homme que Paul dit avoir vu ↔ Paul dit avoir vu l'homme.

(60)

- a. Maria quam Paulus dicit venisse ↔ Paulus dicit Mariam venisse.
- b. Marie que Paul dit qui est venue ↔ Paul dit que Marie est venue.
- c. Marie que Paul dit être venue ↔ \*Paul dit Marie être venue.

또한 부정법 구문이란 그 자체로서는 시제를 갖지 않고 주절의 동사와의 관계 속에서 현재(또는 미래)와 과거의 뜻만을 갖는 상대적 시제 밖에는 표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부정법 구문은 QUE2/QUI 종속절 안에 사용되는 다양한 시제(temps)와 법(mode)을 표현할 수 없다.

제 3장의 (20), (21) 예문에서 보았던 DONT...QUE 구문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려서, DONT...QUE 구문을 문어적이고 고급스러운 문체로 보기도 하지만, 오히려 좋지 못한 불어 문장으로 여기는 연구자도 있다.<sup>31)</sup>

(20) Elle affirme qu'elle a rencontré cet homme. ⇒ Elle affirme à propos de cet homme qu'elle l'a rencontré. ⇒ cet homme **dont** elle affirme **qu'**elle l'a rencontré

(21) Je dis que le mal me possède. ⇒ Je dis à propos du mal qu'il me possède. ⇒ le mal **dont** je dis **qu'**il me possède

즉, QUE...QUE/QUI 구문의 문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중간단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지 못하고 인위적인(artificiel) 문형이라는 것이 DONT...QUE 구문을 비판하는 연구자들의 견해이다(Kr. Sandfeld, 1977: p.206).

QUE...QUE/QUI 구문을 삽입문이나 병치구문을 이용해 다시 쓰면 위의 두 경우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31) "On évitera le tour discuté *Cet homme dont elle affirme qu'elle l'a rencontré.*" (J. Girodet, 1981: 648)

"La langue ordinaire préfère le tour *L'enfant dont je dis que je l'ai vu*, qui n'est pas accepté par tous les grammairiens d'ailleurs, au tour *Cet enfant que j'ai dit que j'ai vu.*" (M. Grevisse, 1986: 1615)

"Ce relatif *dont* équivalait à «au sujet duquel» ou bien joue le rôle de complément de nom par rapport à un des termes de la subordonnée introduit par la conjonction *que*. *Cet homme dont je sais que vous êtes l'ami.* Ce tour, sous sa première forme, quoique condamné par des grammairiens puristes (cf. A. Hermant, *Chronique de Lancelot*, t. II, p.108) est d'un usage courant aujourd'hui." (P. Dupré, 1972: 2145a).

"la langue soignée emploie *dont* = "au sujet de qui": *ce neveu dont tu m'as dit qu'il te ferait crever de chagrin*" (P. Dupré, 1972: 505b-506a)

• 삽입문

(61) cet homme qu'elle a, affirme-t-elle, rencontré 또는 cet homme que, selon ses affirmations, elle a rencontré ↔ cet homme qu'elle affirme qu'elle a rencontré

(62) le mal qui, dis-je, me possède 또는 le mal qui, d'après moi, me possède ↔ le mal que je dis qui me possède

• 병치구문

(63) ... cet homme. Elle affirme qu'elle l'a rencontré.

(64) ... le mal. Je dis qu'il me possède.

QUE1절을 삽입문으로 처리하거나 병치구문을 이용해 문장을 둘로 나누게 되면 QUE1과 QUE2/QUI절은 통사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쉼표나 마침표 같은 구두점이 보여주듯이 삽입절의 앞뒤 또는 병치된 두 문장 사이에는 반드시 휴지(pause)가 들어가게 된다. 반면에 QUE...QUE/QUI 구문은 억양의 관점에서 볼 때 도중에 호흡이 끊기지 않으며, 한 덩어리를 이루는 문장 구성을 가지고 있다. 즉, 삽입문의 효과를 그대로 얻으면서도, 문장이나 구의 삽입에 의해 문장이 끊기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문형이 바로 QUE...QUE/QUI 구문인 것이다.

QUE1절의 역할은 삽입문이나 병치구문으로 바꿨을 때 쉽게 알 수 있듯이 부연설명, 화자의 태도나 감정 상태, 화자의 의견 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맥의 흐름 상 지엽적이거나 부수적인 성격을 갖는 이러한 내용을 QUE...QUE/QUI 구문은 문장 안에 통사적으로 연결된 구성요소로 집어넣음으로 해서 호흡의 끊김이 전혀 없이 말하고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성격은 삽입문이나 병치구문으로는 좀처럼 얻을 수 없는 문체적 효과이다. E. Littré(1965: p.684)가 QUE...QUE/QUI 구문에 대해 생동감 있고 편리하다는 점을 들어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sup>32)</sup>

## 6.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불어의 QUE...QUE/QUI 구문의 형성과정과 혼란의 역사를 알아보고 그 문법적 특징과 문체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라틴어의 부정법 구문에 해당하는 불어의 QUE...QUE/QUI 구문은 불어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문형은 아니며, 이미 라틴어에서 종속접속사절의 발달과 함께 그 모양이 갖추어져 있었다. 격체계의 붕괴에 따라 부정법 구문으로 모든 경우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QUE...QUE/QUI 구문은 자연스럽게 부정법 구문을 상당 부분 대신하게 되었다.

QUE...QUE/QUI 구문은 선행사와 QUE1절 동사와의 호응 관계, 그리고 QUE1절 동사의 이중목적어 문제로 잘못된 과거분사 일치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종속접속사 QUE 자리에 오는 QUI를 피하기 위해 아나콜뤼트 구문 같은 변이형들이 나타나 분석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구두점이 없는 중세 필사본에서의 qui와 qu'i의 혼동, 그리고 여러 층위에 걸쳐 일어나는 철자 전도 현상으로 초창기 불어의 QUE...QUE/QUI 예문들은 구문 분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며, 중세불어 시기의 이와 같은 혼란은 이후의 QUE...QUE/QUI 구문 분석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구문 자체의 문법적 문제와 부정법 구문이나 삽입문과 같은 경쟁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QUE...QUE/QUI 구문이 불어의 발달 과정 내내 사용되었고 아직까지도 살아남은 것은 이 구문의 독특한 문체적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법 구문으로 모든 QUE...QUE/QUI 구문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온전한 시체를 갖

---

32) "Cette construction a été employée, comme on voit, par les meilleurs écrivains: elle est vive et très commode; il serait fort utile de la remettre en honneur."

지 못하는 부정법 구문은 QUE...QUE/QUI 구문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뉘앙스를 전달하지 못한다. 또한 삽입문이나 병치구문의 경우 어쩔 수 없는 호흡의 중단이 수반되기 때문에 QUE...QUE/QUI이 표현해 낼 수 있는 생동감을 잃는다. 이러한 문체적 특성이 문법 분석의 난해함과 문법학자들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QUE...QUE/QUI 구문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Batany (J.), *Français médiéval*, Paris, Bordas, 1972, 2e éd..
- Boutet (P.) et al., *Initiation au système de la langue latine*, Paris, Nathan, 1975.
- Cart (A.) et al., *Grammaire latine*, Paris, Nathan, 1955.
- Chevalier (J.-Cl.), Blanche-Benveniste (Cl.), Arrivé (M.) et Peytard (J.), *Grammaire Larousse du français contemporain*, Paris, Larousse, 1970.
- Dupré (P.), *Encyclopédie du bon français dans l'usage contemporain*, Paris, Trévise, 1972, 3 vol.
- Girodet (Jean), *Dictionnaire du bon français*, Paris, Bordas, 1981.
- Gougenheim (G.), *Grammaire de la langue française du seizième siècle*, Paris, Picard, 1974.
- Grevisse (M.), *Le Bon Usage*, Gembloux, Duculot, 1980, 11e éd.
- Grevisse (M.), *Le Bon Usage*, Gembloux, Duculot, 1986, 12e éd.
- Famerie (E.) et al., *Méthode de langue latine*, Paris, Nathan, 1989.
- Kayne (R.), *Connectedness and Binary Branching*, Dordrecht, Foris, 1984.
- Laclos (P. C. de), *Liaisons dangereuses*, Paris, GF-Flammarion, 1964.
- Lavency (M.), *Usus, description du latin classique en vue de la lecture des auteurs*, Paris-Gembloux, Duculot, 1985.
- Le Bidois (G. et R.), *Syntaxe du français moderne*, 2 vol., Paris, Picard, 1935-1938; 2e éd. avec des notes complémentaires, 1967.
- Littre (E.), *Dictionnaire de la langue française*, Paris, Gallimard/Hachette, 1965, 7 vol.
- Marchello-Nizia (Ch.), *La Langue française aux XIVe et XVe siècles*, Paris, Nathan, 1997.
- Ménard (Ph.), *Syntaxe de l'ancien français*, Paris, SOBODI, 1976.
- Moignet (G.), *Grammaire de l'ancien français*, Paris, Klincksieck, 1973.
- Moreau (M.-L.), "L'Homme que je crois qui est venu. QUI, QUE: relatifs et conjonctions", in *Langue française*, 11, 1971, septembre,

pp.77-90.

*Mystère de sainte Barbe*, ms. BNF fr. 976.

Norberg (D.), *Manuel pratique de latin médiéval*, Paris, Picard, 1980.

Pesetsky (D.), "Complementizer - Trace Phenomena and the Nominative Island Condition", in *The Linguistic Review*, 1 (1981/1982), pp.297-343.

Radford (A.), 「Chomsky의 확대표준통사론」, 이홍배역, 서울, 한신문화사, 1984

*Le Roman de Perceforest*, Ile partie, Genève, Droz, 1999-2001, 2 vol.

Saint Thomas d'Aquin, *Summa Theologiae*, secunda pars secundae partis a quaestione CLXXI ad CLXXVIII, <http://www.unav.es/filosofia/alarcon/amicis/sth3171.html>

Sandfeld (Kr.), *Syntaxe du français contemporain. Les propositions subordonnées*, Genève, Droz, 1977.

Serbat (G.), *Les Structure du latin*, Paris, Picard, 1986.

*La Suite du Romand de Merlin*, éd. G. Roussineau, Genève, Droz, 1996.

Vaugelas (Cl. F. de), *Remarques sur la langue françoise*. Fac simile de l'édition originale publié sous le patronage de la Société des Textes Français Modernes. Paris, Droz, 1934.

Wagner (R. L.) et Pinchon (J.), *Grammaire du français classique et moderne*, Paris, Hachette, 1962.

Zink (G.), *Le Moyen français*, Paris, PUF, 1990.

박은수 · 박옥줄, 「현대불문법」, 서울, 성문각, 1982.

한국불어불문학회, 「불어학사전」, 서울, 삼화출판사, 1985.

김준한(Jun-Han Kim)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주소: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1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Tel : 02-6285-4975

E-mail : junhan@korea.ac.kr